



광주·전남지역이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산산'의 간접영향권에 접어든 17일 여수시 수정동 오토도 방파제에 높은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태풍 '산산' 북동진 광주·전남 영향권

제13호 태풍 '산산' (SHAN-SHAN)은 18일 오전 9시 독도 남서쪽 약 70km 부근 해상을 통과, 19일 오전 9시에는 독도 북동쪽 약 400km 부근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일 오전 9시에 일본 삿포로 서쪽 약 300km 부근 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산산'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41m(시속 148km)로 서귀포 남남동쪽 약 250km 부근 해상(북위 32.2도·동경 129도)을 지나 시간당 39km의 빠른 속도로 계속 북동진하고 있다.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서해남부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호남(전남 남해안 제외), 충청, 강원 영서, 북한에는 10~40mm의 비가 예상되며 서울·경기는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5mm 내외의 비가 오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태풍 '산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전국이 흐리고 비(강수 확률 40~90%)가 온 후 서쪽지방부터 차차 개질이나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해상을 제외한 전 해상에서 3~9m로 여전히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승배기자 ls54@kwangju.co.kr

부산·상하이·싱가포르 비엔날레 맹추격 광주비엔날레 '아성' 흔들린다

문화수도 핵심 콘텐츠 도시역량 결집 시급 ▶ 최고대회 걸맞은 권위·관람객 확보해야

문화중심도시의 핵심 인프라인 광주비엔날레가 부산비엔날레, 상하이 비엔날레 등 크고 작은 후발비엔날레들이 속속 개막하면서 비엔날레 지존(至尊)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개막 11일째인 2006 광주비엔날레는 관람객 5만6천여명(17일 기준)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16일 후발 주자인 부산비엔날레(16일~11월25일)가 개막하면서 성공 가도에 먹구름이 끼었다.

관람객 유치경쟁 본격화

게다가 싱가포르(9월4일~11월12일), 상하이(9월5일~11월5일) 비엔날레 등 아시아 주요 비엔날레가 거의 동시에 열린, 광주비엔날레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어디서나(Everywhere)'를 주제로 개막한 부산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위협하는 대표주자로 꼽히고 있다. 광주와 부산 비엔날레는 현대미술을 주제로 다룬다는 점과 행사기간, 규모 등이 엇비슷해 관람객 유치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1회 대회 때 152만명의 유료 입장객을 기록하는 등 대성공을 거뒀으나 2회 85만명, 3

회 45만명, 4회 41만명, 5회 50만명 등 갈수록 관람객들의 발길이 줄고 있다. 반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부산 비엔날레는 1회(10만2천명), 2회(10만 7천명)등 꾸준히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 관람객 목표의 경우 광주는 지난 5회 대회와 같은 50만명인데 반해 부산은 3배나 늘어난 30만명이다.
하지만 부산비엔날레의 강점은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와 관광인프라에 있다. 여기에 지난 2회 대회 때부터는 아시아의 대표문화브랜드로 자리잡은 부산영화제(10월12~20일)와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마케팅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비엔날레는 올해 관람객 유치를 놓고 승부수를 띄웠다. 광주 비엔날레가 입장료를 1만2천원(일반)으로 책정하자, 부산은 7천원으로 정하는 등 '바닥대매'로 맞선 것이다.
부산 참여작가 광주 초월

부산 참여작가 광주 초월

규모면에서도 광주비엔날레에는 32개국 127명의 작가가 참가하는 데 비해 부산비엔날레에는 역대 최대인 39개국 234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외국인 관람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해운대 등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강점 때문에 관람객 유치면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위상

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함께 상하이 비엔날레, 싱가포르 비엔날레도 광주비엔날레의 아성을 넘보는 경쟁주자들이다. 지난 8일 오픈한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개막식에 세계 주요 미술계 인사들이 거의 참가하지 않았던 반면, 상하이 비엔날레에는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장,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장 등 내로라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회위상을 높였다.

장단기 발전전략 수립을

올해 창설된 싱가포르 비엔날레도 관람객 유치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어 무시 못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싱가포르 비엔날레측은 최근 광주에 싱가포르 비엔날레 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 전시장내 비치할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미술계 원로인 강연균(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씨는 "광주비엔날레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비엔날레 재단, 미술인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장단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행사 6회째를 맞는 만큼 자체 수익을 남기는 대회로 거듭나는 등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광주비엔날레 송상락 사무국장은 "부산비엔날레와 경쟁이 불가피해질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광주비엔날레는 국내외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부산도 비엔날레
지난 16일 2006부산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관람객들이 주 전시관인 부산시립미술관에 설치된 정만영씨의 '하얀 숲' 등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부산=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나라 '전효숙 반대'는 정략적 대응” 72%

■ 본사, 인터넷 패널 대상 긴급 여론조사
71% “여야, 현재소장 임명 동의해야”

광주일보 인터넷패널의 70%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에 정치권이 동의해야 하며, 한나라당의 전 후보자 인준 반대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4면)

광주일보사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본사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해 응답자 236명 중 167명(70.8%)이 '국가 안정을 위해 여야는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69명(29.2%)은 '명백하게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동의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전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자신사

퇴를 주장하며 임명동의 처리에 임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와 관련, 응답자 236명 중 170명(72.0%)은 '정략적 대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66명(28.0%)은 '정당한 견제'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전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 응답자 236명 중 155명(66.0%)은 '경륜과 소양면에서 적격자'라고 답했으나 81명(34.0%)은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부적격자'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순전 출신인 전 후보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호적 반응이기도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번에 걸친 사과와 캐스팅보트를 친 야 3당의 중재 안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절차상 하자 논란으로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으며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도 잠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 패널은=광주일보 인터넷 패널은 경제·교육·의료·문화·정치·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와 주부·공무원·시민 사회단체 회원·농업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497명이 활동 중이며 참여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이메일과 휴대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설문 조사를 요청받으면 광주일보 홈페이지에 개설된 공간을 통해 의견을 표시한다.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 입상작 전시회
9월 1일~30일, 광주 지하철 금남로5가역
광주일보사 ▶문의: (062)226-0541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전국 130개 도시 400여개 매장 어디서나 편리하게
받는 기쁨, 주는 즐거움-금강제화 상품권
금강, 랜드로바, 금강핸드백, 의류까지 다양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상품권의 베스트셀러
금강제화 상품권
상품권 구입문의: 전국 어디서나 1588-8877

www.kumkangmail.co.kr